

기본에 충실한 ‘짱구농장’

한국오리협회 정기현 충북지회장 농장탐방



글·사진: 축산신문 서혜연기자



짱구농장 출입구의 정기현 대표

● 짱구농장

대표 정기현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초금로 216

땀별이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짱구농장은 더위를 모르는 듯 활기로 가득 찼다. 필자를 맞이한 짱구농장 정기현 대표(한국오리협회 충북지회장)는 주변 농기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었다. 승마가 취미라는 정기현 대표. 표정에서부터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났다. 그래서인지 그의 농장이 더욱 궁금해졌다. 세 번째 오리농가 탐방. 짱구농장을 소개한다.



01 오리 출하 후 비어 있는 축사 02 갓 들어온 새끼오리

●○ 기본을 철저히! 행복한 짱구농장

“잘은 몰라도 오리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회사에서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특별히 사육노하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유별난 비법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깔짚을 잘 깔아주고, 소독도 잊지 않고 꼭 해준다는 것이다. 정기현 대표는 오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 초 이온수기를 설치했다. 오리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니 생산성이 좋아졌고, 사료효율도 닭만큼 좋아졌다며 귀띔했다.

18년 전부터 오리 사육을 시작한 정기현 대표는 현재 3만수 규모의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종닭을 키웠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ND)으로 인해 전수 살처분을 당한 후 오리농장을 시작하게 됐다고. 아무래도 닭보다는 오리가 면역력이 좋아 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 올인올아웃 OK, 축사 약취 NO

이날 짱구농장은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오리병아리 1만수만 있었고, 나머지 육성사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All in-All out’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농장에서는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는데 진짜로 냄새 안나나요?”라고 되물었다. 충청도에서 지원해준 약

특별한 사육노하우는
기본에 충실한 것
깨끗한 물 먹이니
생산성 좋아져

철저한
'올인-올아웃제도' 지켜
냄새없는 농장...
주변 경종농가와 상생

취저감제도 사료로 먹이거나 농장에 뿌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짱구농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과채류를 기르는 농가들도 여럿 있었다.

●○ 주변 오리농가와 친목은 승마로

최근 정기현 대표는 승마에 푹 빠져있다. 주변 오리농가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질병을 우려하자, 정 대표는 “충북 음성에는 오리농장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농가가 AI에 걸리면 확산되기가 쉽다. AI가 잘 오는 겨울에는 주변 농가들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여름에는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 대표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농장을 뒤이을 후계자가 있다는 것이다.

정기현 대표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아버지의



승마가 취미인 정기현 대표의 애완 말





03



04



05

03 오리 1만수 규모의 제농장 04 오리 2만수 규모의 제2농장 05 정기현 대표가 빈 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오리고기 빈도수 늘려 나중에 다시찾는 습관 만드는 게 중요

농장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정기현 대표는 아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 자급자족 축산환경 · 학교급식 확대 필요

“식량 자급자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기현 대표는 무엇보다 국내 축산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FTA로 인한 관세제도가 완화되면 값싼 축산물이 밀려들어오고, 국내 사육기반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로 국내 축산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값싼 수입축산물도 점차 가격이 높아져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정 대표는 예측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학교급식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든 첫 맛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오리고기를 접하지 못하거나, 수입산 오리고기를 섭취하게 된다면 국내 오리고기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오리고기의 빈도수를 늘려 국내산 오리고기가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피력했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 이온수기